



## 2025 BETHEL THEME

여전히 **Jesus**  
ALONE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장 6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 입이 내게 있으면(찬23/새23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이선갑 장로 2부/정현근 장로 3부/최호경 집사 4부/김승진 집사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이현철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골로새서(Col.) 4:2-6.....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1:4-18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Supreme Jesus(21) 소금끼 있는 기도와 전도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37): 여호와 삼마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우리 함께 기도해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나이와 겸손의 상호관계

Inter-relationship Between Age and Humilit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이스라엘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정원에 2000년된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곳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이 나무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면, 갑자기 그 나무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세쿼이아 국립공원 깊은 숲에는 '셔먼 장군 나무(General Sherman Tree)'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22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나무 중 가장 부피가 크다고 합니다. 다들 2000년 넘게 악천후와 산불을 견뎌온 나무 앞에서 신비한 경외심까지 느끼며 사진 찍기 위해 줄을 섭니다. 지난 번 목회자들이 다녀온 네바다 타호 호수(Lake Tahoe)는 미국에서 두 번 째로 큰 호수라고 합니다. 만 피트 정상에서 내려다 보는 호수는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Heavenly'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활한 자연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경건함을 갖게 되나 봅니다. 사람이 만든 고층 빌딩이나, 9,999 방을 가진 거대한 왕궁 앞에서는 감탄으로 끝나지만, 인간적인 냄새가 배제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더 크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일 오래 되었다고, 혹은 제일 크다고,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기록이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것은 그 세월과 사이즈가 말해주는 메시지 때문일 것입니다. 셔먼 장군 나무는 산불, 가뭄, 병충해 등 다양한 위기를 겪으며 성장해 왔는데, 특히 산불은 나무에게 큰 위협이 되지만, 오히려 산불 후에는 새로운 싹이 자라는 기회가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웅장한 자연 공원으로 남아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게 되었나 봅니다. 타호 호수(Lake Tahoe)는 긴 세월 동안 화산과 빙하 작용, 그리고 단층 작용 겪으며 형성 되었고, 그 변함 없는 모습에 하늘나라 같다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어려운 세월을 지나면서 키워진 연수와 크기는 단순히 장엄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긴 세월을 견뎌낸 인내이며, 그 인내 속에 담기는 호수 만한 겸손입니다. 생일을 맞을 때마다 세월에 부끄럽지 않은 겸손이 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백발 앞에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레 19:32). 또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며, 백발이 대변하는 세월의 흐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잠 16:31). 요즘 다들 염색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백발 앞에 일어설 어른들이 점점 주는 것 같습니다.

At Mount Carmel in Israel, there is a place called Gethsemane where Jesus prayed until drops of sweat became drops of blood. In the garden of Gethsemane, there is a 2000-year-old olive tree. When you think about the tree, it may have watched Jesus praying. That suddenly makes us straighten our cloths in front of the tree. Deep in the Sequoia National Park stands a huge tree named General Sherman. This tree is said to be more than 2200 years old. It is the biggest in size of all existing trees. Out of respect for the tree that endured severe weather and forest fires over 2000 years, people line up to take pictures. Pastoral staff recently went to Lake Tahoe, Nevada. It is said to be the second largest lake in the U.S. Looking down on the lake from top of the mountain, 10,000 feet in elevation, it almost felt like we might see God. Thus, the place is called 'Heavenly.'

This vastness of nature makes people think about God. There's a certain sense of sacredness. When built by man, whether it's a high rise building or a 9,999-room castle, it only amounts to admiration. However, nature, as it stands, with no human touch, has the effect of reminding us of the great God.

We would not be able to say that it is all good just because it's the oldest or the biggest. But the record attracts our interest because of the message it conveys through time and size. General Sherman tree matured through experiencing forest fires, drought, parasites, and other dangers. Specially, a forest fire is the biggest threat. However, after the fire, it gives an opportunity for new seedlings to grow. Today it is a vast nature park that attracts many visitors. Lake Tahoe is, over a very long time, formed by the work of volcano, glacier, and faults. Its unchanging image coined a nickname Heavenly.

Its age and size, growing through difficult times, do not just end with simply being majestic. It has a message for us. It's the perseverance through time. In that perseverance is the humility that is the size of a lake. On every birthday, I look back to see if my humility has grown unashamed over time. The Bible tells us to stand up before the gray head (Lev 19:32). Also, it says that gray hair is a crown of glory; it is gained in a righteous life (Prov 16:31), and they should not be ignored. Nowadays everyone dyes their hair. Gray-haired elderly that we should stand for are decreasing.

주일 설교 시리즈: 골로새서 강해 (21)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

# 소금끼 있는 기도와 전도

(골 4:2-6)

## 1. 나를 전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용하기



## 2. 성도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지속성에 핵심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2절, 참고/마 6:7-8)

## 3.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신이 매임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3절, 참고/빌 1:12-14)

## 4. 복음이 확산 될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아래 참고 구절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전파되는 일에 길이 열리도록 구하십시오.

- 행 1:4 ...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 )
- 행 1:14 ...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 )에 ( )
- 행 2:41-42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 )하기를 ( )

## 5.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지혜로운 말로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구절을 읽고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이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6절, 참고/약 3:17, 잠 25:11, 엡 4:29)

## 6.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아뢰시다.(5절, 엡 5:16)

■ 적용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선교  
브라질

## 선교를 통해 드러진 진실된 예배



올해부터 예수 선교 팀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브라질로 선교를 가야겠다'라는 교만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를 은혜와 감사의 역사로만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목사님과 허 사모님께서서는 다음 세대와 카탄두바 주변 지방 도시들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동역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격이자 감사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린이들에게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포르투갈어를 모두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분의 눈빛, 행동, 호흡을 통해 복음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믿는 자의 선포는 사랑을 품으면서도 담대하고 확고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작 전, 십자가를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셨고, 성도들 모두가 진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의 간절함이 찬양과 기도 속에 공존했습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참여와 신중히 정해진 예배 순서 속에서도, 예배와 복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히 전해졌습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 배웠는데, 그곳의 성도들이 이미 드리고 있던 진실된 예배 앞에, 오히려 제가 드렸던 예배와 예배를 대했던 제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모든 것을 다해 그분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 속에서, 브라질에서 드렸던 진실된 예배가 저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드러지길 사모합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은 강하고 살아 있으며, 복음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는 생명과 회복 역사의 시작이자 끝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천국의 예배를 이 땅에서 미리 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으로 얻은 영생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이 임하길, 특별히 브라질에서 그 예배를 함께 경험한 팀원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소중한 팀원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팀장님들만으로도 저의 간증이 충분히 채워짐에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지수

사역  
2부 예배 안내팀

## 질서와 배려로 이끄는 은혜의 징검다리



주일 2부 예배는 베델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배로, 주일 예배 중 가장 많은 성도님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본당과 2층까지 가득 찬 예배당 안에는 찬양과 기도, 말씀의 감동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은혜가 질서 있게 흐르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로 2부 예배 안내팀입니다.

총 14명의 봉사자로 구성된 2부 예배 안내팀은

1부 예배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본당 한 쪽에 모여,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하루의 섬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마음은 예배 내내 이어져, 본당 입구와 2층 계단 곳곳에서 서서 성도님들을 정중히 맞이하고, 좌석 안내는 물론 예배 현장 곳곳의 시설 점검과 환경 정비,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릴 주보와 성경책 준비 등 예배의 모든 세부적인 요소를 살피며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에 처음 참석하는 새가족이나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성도님들이 낯설지 않도록, 미소와 친절로 응대하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예배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혼선조차도 은혜로 감쌀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배려를 더 합니다. 안내는 단지 자리를 안내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예배 앞으로 이끄는 '은혜의 징검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지해 남편 장로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던 한 권사님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두 발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뵈게 되었습니다. 안내팀 모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에 벅찬 감사와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당 곳곳에서 펼쳐지는 작지만 깊은 이야기들은 안내팀에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자, 사명의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비록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이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안내팀은 오늘도 기도로 무장한 채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깊은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그어나 뜨겁게 섬기겠습니다.

이종선 집사



인터뷰  
복음의전함

## 예수님과 함께 하는 행복을 세계로 전합니다



사단법인 '복음의전함'은 미주 지역 복음화 캠페인 '블레싱 USA 캠페인'을 넘어, '블레싱 월드 캠페인'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복음 전파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로서 이 캠페인에 협력 중인 '디렉터 교회' 목회자들에게 캠페인의 의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중 김한요 담임목사님의 인터뷰만을 발췌하였습니다.

## 미국 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한인 1세와 2세 사이에 낀 '낀 세대'라고 스

로 생각합니다. 2세에게 '영적 바통'을 넘겨주는 '브리지'(다리)가 되려 합니다. 교회 내 KM(한어권 공동체)과 EM(영어권 공동체)의 장벽을 허물고, 한인 2세대의 고민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도 집중합니다. 또 자녀를 성경에 따라 교육하는 문제에 고민이 컸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기초를 둔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올바른 지혜와 인성을 갖추고,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당당한 리더들로 자랄 수 있도록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학생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추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격과 영적,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균형 잡힌 학생들로 양육하기 위해, 일반 교과목과 함께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교과목을 접목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미국 내 전도의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정체성에 관

련된 성교육 및 평등법 등이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가치관이 녹아든 교과목이 공립학교 수업으로 지정되고 있어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의 우려와 반발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 '복음의전함'의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소그룹 리더를 키워내는 30주의 과정이 있는데, 약 1년간의 이 제자훈련 과정에 들어볼까 플랫폼을 적용해 예화를 풍성하게 하는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성도들의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누구도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복음의전함' 캠페인에 참여하며 결국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교회학교  
소망부 VBS

##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길



처음에 소망부 VBS 봉사를 신청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와 '학생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팀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 덕분에 빠르게 적응하고, 봉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분들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기뻐고, 오히려 학생들을 통해 순수한 기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배우게 되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기쁨으로 섬기며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배지섭

이번 소망부 VBS는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부터 삶,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의 이야기를 배우고 경험하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교육 부서의 든든한 협력과 김재은 전도사님의 인도로 알차고 풍성하게 진행되었으며, 매일 아침 정가영 전도사님의 말씀과 Kevin Ma 선생님의 찬양으로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Bible, Snack, Craft 세 가지 스테이션을 통해 친구들이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보고, 체험하였으며, 이번 주제에 맞게 토끼, 돼지, 라마 등 다양한 동물들과 직접 교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카니발 데이에 기차,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점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아이들과 봉사자 모두가 함께 즐기며 하나 되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으로 참여하면서, 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운영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따뜻한 헌신과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함께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고, 또 부모님들과 직접 교류하며 자녀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도 저에게 큰 감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망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길 기도하며, 다음 소망부 VBS 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소진 집사

교회학교  
한국학교

## 형형색색 작품으로 주신 창조의 기쁨

지난 학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베델한국학교에서 특별반 종이접기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처음 이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는 다소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는 작은 접기 하나가 아이들의 손끝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기쁨과 가능성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 반짝이던 설렘과 성취감은 교사인 제게도 큰 감동과 보람으로 다가왔고, 한 학기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은,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제3회 종이접기대회에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함께 만든 작품이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아이디어를 나누고, 작품의 주제와 구성을 고민하며, 손이 아프도록 종이를 접어가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함

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종이접기는 단순한 공예 활동을 넘어 아이들에게 깊은 인내와 집중력을 길러주는 귀한 도구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미적 감각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활동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는 한글 수업에서 배운 언어를 실제 문화와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종이로 한 땀 한 땀 만들어 상상 속의 세상을 완성해 갔던 그 과정은 교사인 저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종이접기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과 창조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

께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 교사 인생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귀한 경험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로 함께 해주신 베델한국학교와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과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한글과 문화를 심어가는 데에 더욱 충실히, 그리고 기쁨으로 임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접으며 함께 웃고,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셨고, 앞으로도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은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지현 집사

간증  
바나바 사역

## 사랑과 은혜로 얻은 축복



미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선물 받게 된 성경책. 그 당시 그 책은 책장 한 겹에도 자리하지 못한 채 높은 옷장 선반 위에 박스째 놓여있었습니다. 미국 올 때만 해도 교회라는 곳은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다니시던 붉은 커튼이 드리워지고 예배당이란 목판이 걸려져 있던, 그곳에 들어서면 울려 퍼지는 풍금 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이상한(?) 경험과 지금은 천국에 계신 외할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해 성경책을 선물해 준 그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료한 이민 생활의 일부 같던 교회 생활은 그분의 기도와 섬김, 헌신으로 어찌면 수많은 누군가의 기도 속에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 삶에 진정한 위로와 도우심은 오직 십자가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달아 가는 신앙생활로 점차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베델에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의 등록과 처음 교회 생활을 잘 정착할 수 있게 돕고 섬기는 바나바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던 권사님의 권면으로 사역을 함께하게 되면서 난생처음 교회에 오셨다는 성도님께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고 양육반 교육을 수료한 후, 세례를 받고 베델에서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문득문득 그 옛날 나를 이끌어주셨던 집사님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바나바님들을 생각하며 턱없이 부족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무의미한 세상 속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얻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구원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되고, 그 삶의 시작을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주일마다 아니, 날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하은정 집사

##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 ◎목회자◎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QT: 조태현 목사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은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송용주 목사  
 예배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배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배채플: 이형석 전도사  
 예배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 정티나 목사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경연  
 예배 위십: 조요셉

##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콘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사역광고

## 가을학기 베델 제자훈련 모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혹은,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2025년 가을학기 베델 제자훈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양육반, 제자반, 그리고 말씀플러스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과정은 훈련된 리더들과 목회자들을 통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이 바로 제자로서 성장할 믿음의 계절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많은 참여와 등록 바랍니다! 신청은 본당 앞 안내 부스 또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 영어 양육반과 영어 제자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양육반-8월 17일(주일)까지, 제자반-8월 31일(주일)까지, 말씀플러스-8월 31일(주일)까지

▶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bkc.org) 및 본당 앞 부스

▶ 오리엔테이션 일시/장소: - 양육반: 8월 24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한, Eng)  
 - 제자반: 9월 7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한, Eng)  
 - 말씀플러스: 10월 중 개별통지

▶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English Growth Class) Rev. David Park (718)490-9931



##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월) | 8/17: ①부-조관희 ②부-주진철 ③부-한 존 ④부-김소라  
 8/24: ①부-최주상 ②부-탁정호 ③부-한상섭 ④부-권주현  
 8/31: ①부-허용진 ②부-홍승평 ③부-황세현 ④부-윤지섭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8,9월) | 8/16: 기상원 8/23: 김건중 8/30: 김기주 9/6: 김광식  
 강단꽃(8월) | 8/10: 오경희, 조나원, 현승원 8/17: 윤주원, 최하자 8/24: 최하자 8/31: 이수민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종구(치과), 간호사-김명숙

다음주 | 의사-오흥길(외과), 간호사-이옥선

##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리딩저서스 저자와 함께 하는 수요저녁예배** 이번 주 수요저녁예배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리딩저서스'를 총괄 기획하신 권혁민 목사를 초청하여 저자 특강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8월은 자녀를 위한 기도회도 함께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8월 13일(수) 저녁 7시 30분

강사: 권혁민 목사(웨스트민스터 신학교 MDiv, PhD in Church History,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글로벌 사역 디렉터 역임, 현) 북미주 KCBMC 사무총장(President)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베델 양육반 모집(한/Eng)** 훈련된 인도자와 함께 견고한 신앙의 기반을 다지고, 귀한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영어 양육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7면 참고)

신청 마감일: 8월 17일(주일)까지

오리엔테이션: 8월 24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

문의: (양육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Eng) Rev. David Park (718)490-9931

◆ **제63차 전도폭발 모집** 전도의 필수적인 방법과 패턴을 배우고 훈련받는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기간/장소: 8월 26일-12월 9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유년부실

등록 방법: 본당 앞 부스와 주보 QR 코드 신청

문의: 최동주 집사 (602)466-4477

◆ **셀 부흥회** 하반기를 시작하며 '몸 튼튼! 마음 튼튼! 믿음도 튼튼!'이라는 주제로 셀부흥회가 열립니다. 암 박사 김의신 박사(장로)의 몸 건강, 상담으로 섬기시는 황성철 목사의 마음 건강, 그리고 김한요 담임목사의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을 건강하고 힘차게 시작하는 하반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시: 8월 22일(금) 저녁 7시 30분, 8월 23일(토) 오전 6시, 7시 30분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제6기 베델기도학교 개강 및 등록** 기도학교가 이번주 목요일(14일) 개강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총 14주간의 교육에 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8월 14일-11월 13일(총 14주)

접수 마감: 8월 14일(목), 개강 예배 당일 현장 등록 가능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prayer@bkc.org

◆ **자녀를 위한 기도편지 신청** 베델 기도사역팀에서 새 학기부터 연말까지 매주 자녀에게 발송할 기도편지를 제작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방법: 8월 한 달, 수요저녁예배 후 신청 부스에서

발송 기간: 8월 29일(금)-12월 19일(금), 총 17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prayer@bkc.org

##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BAM 모집** 봄학기 훈련 1-3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방법: 8월 10일(주일)-24일(주일), 본당 앞 부스나 QR 코드 훈련 기간: 8월 28일-11월 20일(총 12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문의: 이완희 집사 (949)431-4398



◆ **베델 MIT 가을학기 모집** 다음 주일(17일)부터 본당 앞 부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62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참가비: 9월 4일(목)-11월 20일(목) 매주 목요일, \$150

강좌: 노래교실, 뜨개질, 유화, 종이접기, 난타, 통기타, 한국어, 한글서예, 건강한의학, 향기로운 인격 만들기

문의: 이강오 장로 (949)281-9530

◆ **베델 아기학교 가을학기** 생후 15-48개월 아기들을 위한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9월 3일-11월 19일 매주 수요일, 총 12주

정규반(15-48개월) 회비/정원: \$300, 36명

추가반(30-48개월) 회비/정원: \$200, 6명

문의: 최미정 전도사 (949)738-7225, 현승원 집사 (701)212-5517



◆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 교사 모집** 개강을 앞두고 한국어 교육에 헌신한 교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가을학기 기간/문의: 9월 6일-12월 13일, 유주원 장로 (949)892-9512, koreanschool.bkc.org

◆ **교회학교 교사 모집** K-1 부서에서 2부 예배 시 봉사하실수 있는 교사를 찾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오니 꼭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 **베델 그레이스 콰이어 모집** 시니어 성가단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토요 헬스 바 기도회를 중심으로 섬기며 찬양과 찬목을 이루어갈 콰이어에 지원바랍니다. 자격: 베델교회 세례교인 60세 이상

문의: 이국선 장로 (949)677-3840, 오성애 권사 (909)319-2158

◆ **기도해주세요** 태국 단기선교가 8월 11일(월)-19일(화)에 진행됩니다.

◆ **축하해 주세요**

박석종/조나래 성도님의 가정에 아들 지후가 8월 3일(주일)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지금선 권사님(지상우 성도의 모친)께서 8월 3일(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 베델뉴스 편집위원                                                                                                                                                                                                                       |
|------------------------------------------------------------------------------------------------------------------------------------------------------------------------------------------------------------------------------------------------------------------------------------------------------------------------------------------------------------------------------------------------------------|-----------------------------------------------------------------------------------------------------------------------------------------------------------------------------------------------|---------------------------------------------------------------------------------------------------------------------------------------------------------------------------------------------------------------------------------|
| <p>■ AWANA(어와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li> <li>- Truth&amp;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li> </ul> <p>■ 중,고등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li> <li>-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li> </ul> <p>■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p> <p>■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p> | <p>■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p> <p>■ 헬스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p> <p>■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p> <p>■ 예수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p> <p>■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p> | <p>■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p> <p>■ 편집장: 김경자 권사</p> <p>■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p> <p>■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p> <p>■ 번 역: Grace Yi 전도사</p> |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mailto:bgrcenter@hotmail.com)



COLOSSIANS LECTURE (21)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Supreme Jesus!**

# Prayer and Evangelism Seasoned with Salt

## (Colossians 4:2–6)

1. Who is the person that evangelized you?
2. Saints are people of prayer. Not people who pray once in a while, but people who constantly pray. What is the essence of persistent prayers? (v. 2, Ref: Matt 6:7-8)
3. What is the subject of prayers that Paul is asking for? Paul professes that this is the very reason why he is being held in chains. (v. 3, Ref: Phil 1:12-14)
4. Whenever we see the Gospel spreading, there appears the prayers of saints. Please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ask that as we pray for spreading of the Gospel, a way will open up.
  - Acts 1:4 ... he gave them this command... but ( )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 Acts 1:14 ... They all joined together ( ) in ( )...
  - Acts 2:41-42 Those who accepted his message were baptized, and about three thousand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They ( )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 ).
5. It is said that those who constantly pray for evangelism will be able to have wise conversations as they evangelize, as if seasoned with salt. Please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explain what is meant by conversations seasoned with salt. (v. 6, Ref: James 3:17, Prov 25:11, Eph 4:29)
6. Putting into practice the words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let's pray together for the person that you want to evangelize. (v. 5, Eph 5:16)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